

## 2020년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제5강

-난민과 인도주의정치: 인류학적 시선들

강연: 전의령(전북대/고고문화인류학과)

1. 안녕하세요. 강의를 맡은 전북대 고고문화인류학과의 전의령입니다.

저는 오늘 난민과 인도주의 정치에 관한 인류학 내 논의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 몇 개의 논의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국가없음과 난민, 그리고 인도주의의 역사에 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세명의 인류학자들의 논의들, 그 중 한국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곱씹어볼 만한 논의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난민의 재현'에 관한 리사 말키의 논의, 그리고 프랑스에서 등장한 난민인정의 의료화 문제에 관한 디디에 파생의 논의, 마지막으로, 인도주의 정치에서 순수성의 추구하고 그 속에서 희생양(피해자) 담론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는지에 관한 미리엄 틱틴의 논의를 이야기한 후, 이들 논의들이 한국의 상황에서 어떤 함의들 또는 질문들을 촉발시키는지, 이에 대한 대안들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3. 먼저, 난민이란 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했으며, 20세기 이후 난민은 어떤 현상으로 굳어지게 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난민을 뜻하는 refugee란 말은 원래 불어의 refugie에서 온 것이죠. 불어의 refugie는 16세기 스페인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프랑스로 넘어와 망명하게 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고, 이후 영어의 refugee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넘어온 칼뱅주의자들을 부르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세기 이전 서구에서 망명의 권리와 환대의 의무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었고, 이른바 '국가 없음', 즉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또는 어느 국가도 받아주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난민'의 현재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20세기의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대량의 국가없는 사람들, 즉 난민을 생산한 여러 사건들을 목도한 시대였습니다. 대표적으로 1, 2차 세계대전, 러시아혁명, 구제국들의 해체는 유럽의 지도를 새로 그렸고, 그 결과 새롭게 생겨난 국경들, 국가들 속에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즉,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또는 국가란 공동체의

타자로서 존재하는 난민이 등장하고, 주로 난민을 위해 <국가 아닌 국가>로서 이른바 예외적 공간인 캠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의 난민이 처한 상황을 보며 한나 아렌트 같은 사람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의미하는 <인권>을 사실상 한 국가의 국민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권리(즉, 한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국가의 정치적 삶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기본 권리)로 재정의하게 되죠.

### 슬라이드3

20세기 중반 이후, 다양한 맥락 속에서 난민들이 계속 출현하게 됩니다.

냉전 하에서 일어난 베트남 전쟁의 결과로 보트피플, 한국전쟁 속의 전쟁고아들(나중에는 해외입양인이 되는), 또는 탈북인들도 냉전에 의한 난민으로 포함시킬 수 있겠죠.

또, 식민주의, 제국주의의 유산으로 지구 곳곳에서 일어난 종족분쟁과 대량학살의 결과로 난민들이 대거 출현하게 됩니다. 대표적 예로, 부룬디와 르완드의 내전 및 학살, 발칸 반도에서의 인종청소로 난민이 생겨나게 되죠.

또, 대테러 전쟁으로 인한 아프간 난민들과 중동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시리아, 예멘 난민들이 주로 20세기 후반에서 지금에 이르는 난민의 얼굴을 구체화하게 됩니다.

20세기적 현상으로서의 난민의 출현 이후 국제 사회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난민 지원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예로, 유엔난민기구와 다양한 규모의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비국가적 인도주의/난민지원단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국제 난민지원활동과 그 체제는 인도주의적, 의료적, 법적 지원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국제적/국가적 관련 법제도, 지식, 그리고 미디어의 난민 재현과 함께 어우러져 글로벌 난민 담론을 복잡하게 형성하고 있죠.

### 슬라이드4

덧붙여 난민 지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도주의란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주의는 물론 18세기 서구에서 인권 개념과 함께 등장하지만 인권과 이론적으로 구분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이 인간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말한다면, 인도주의의 핵심은 생물학적 존재로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고통'을 감소하고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주의의 초기 역사에서 이는 감옥 내 수감자들에 대한 인도적 대우, 그리고 전쟁 중에서도 지켜져야 할 인도주의적 원칙을 세우는 것과 관련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서로 적대적 관계가 되어 발발하는 전쟁에서도 fair play라는 개

념이 세워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었고, 그 결과 그것을 실행하고 중재하는 기관으로서 인도주의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그렇게 인도주의는 19세기에 이르러 제도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그 중 한 예로 아직도 존재하는 국제적십자위원회(icrc)가 스위스에서 설립이 되었으며, 관련 국제협약으로 제네바 협약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출현한 인도주의와 그것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뒤에서도 이야기할 인도주의의 모순에 근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인도주의는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국가, 종교, 인종, 계급 등등에 상관없이 작동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종종 전쟁과 같이 매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수행되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수 있는 가능성은 이미 배제되어 있다는 거죠.

## 슬라이드 5

그럼 지금부터 90년대 이후 인류학 내에서 진행돼온 난민과 인도주의 정치에 관한 몇가지 논의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논의는 미국의 인류학자인 리사 말키의 문제제기입니다.

말키는 1980년대 탄자니아에서 현장연구, 즉 1972년 대학살로 인해 부룬디를 떠나 탄자니아에 망명해 살고 있는 후투족 난민들에 관한 현장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부룬디는 1965년 독립 이후 다수를 이루는 투치족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 그 결과 군부독재가 세워졌고, 그 속에서 20만명이나 되는 후투족 사람들이 대량학살되고 동시에 10만명이나 되는 후투족 난민이 발생하게 된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사실상 최근까지도 내전과 학살이 계속되면서 장기화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말키는 1980년대에 탄자니아에 와서 살고 있는 후투족 출신 난민들에 대한 현장연구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난민들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과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들이 난민을 정의하는 방식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으며, 다시 단체의 난민 정의 방식은 글로벌 미디어에서의 난민재현과 상보적으로 기능하게 되면서 난민을 탈역사화되고 비주체화된 존재로서 재현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 슬라이드 6

먼저, 탄자니아에 망명한 후투족 난민들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탄자니아의 후투족 난민들은 이른바 미샤모라 불리는 캠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키고마라고 하는 타운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들의 거주

지역에 따라 삶의 방식, 그리고 망명이라는 것에 의미화하는 방식은 명확히 달라 지죠. 타운에서 살아가는 후투족 난민들은 보통의 이주민들로서 살아가는 것에 비해 문제가 되는 것은 캠프에서 살고 있는 캠프난민들입니다.

캠프 난민들은 마을 난민들과 달리 자신들의 상황을 하나의 긴 역사적 서사 속에서 의미화 하고, 망명의 상태를 일종의 (집단으로서 경험하는) 도덕적 수난과 곤경이자, 미래에 조국을 다시 쟁취하는 데 있어서 단계적 조건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들에게 <난민됨>은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생산적 의미를 가지며, 그리고 정확히 '역사적 정체성'으로 명명될 수 있습니다.

### 슬라이드7

하지만, 미샤모 난민캠프에서 활동하는 유엔난민기구와 탄가니카 크리스찬 레퓨 지 서비스라는 지역단위의 단체 직원들이 난민을 정의하고 대하는 방식은 난민들이 스스로 정체화하는 방식과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지원단체들의 활동에 후투족 난민들이 들려주는 구구절절한 곤경의 서사와 그들이 위치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은 대부분 무의미하고 무관한 정보로서 여겨질 뿐 아니라 그들의 활동에 저해가 될 뿐입니다.

즉, 지원단체들은 거의 종종 '진짜 난민은 어떤 존재이며, 또는 전형적으로 난민은 이런 모습의 사람이야...라고 하는 표준화된 정의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난민은 스스로의 역사적 주체성을 인정받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관련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명되고 파악되고 그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그 속에서 실제 난민들의 구체적 이야기들은 전혀 유의미하지 않을 뿐 아니라 종종 과장되고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간과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 슬라이드8

이와 같은 지원활동/단체의 난민 정의는 그럼 어떻게 생산, 또 재생산되는가? 2차세계대전 이후, 국제 사회에서 난민처리는 표준화되었고, 바로 그 맥락 위에서 난민을 지원하는 국제 단체들, 관련정책과 지식 등이 작동하고 있으며, 여기서 난민의 진실, 상황에 대한 권위는 이 국제 체제가 점하는 무엇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난민을 재현하는 미디어의 역할은 상보적으로 작동하고, 그 결과 '난민'은 이른바 <말없는 특사들>로 등장하게 된다고 말하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없는"은 두 차원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즉, 첫 번째는 국제난민지원장치 속에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말할 역량과 언어를 가지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없는 존재이며, 동시에 그와 같이 난민을 정의하는

국제난민지원체제 속에서 구조적으로 말없게 되는, 즉 말과 언어와 행위자성을 박탈당하는 존재로서 말없는...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거죠.

말없는 특사로서 난민은, 역사와 그들만의 서사가 증발된 벌거벗은 생명, 즉 이름도 의견도 관계도 역사도 없는 특정 유형의 인간과 그들이 처한 조건을 총칭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난민의 재현은 바로 다음의 사진(잠비아의 난민들이라는 제목의 77년도 사진)이 정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슬라이드 9

하나의 물결, 또는 바다처럼 존재하는 역사, 이름, 친척도 없는(즉 역사와 관계가 부재하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총칭으로서 난민

### 슬라이드 10

디디에 파생이라는 프랑스 인류학자는 2000년대 프랑스의 난민인정 제도의 의료화와 그것이 난민지원단체들에게 가져오는 딜레마에 대한 현장연구를 통해 말 키가 이야기하는 난민의 탈역사화, 비주체화라는 문제가 더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난민인정의 의료화라 함은 프랑스 난민당국이 난민신청자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고문과 박해의 신체적 증거 또는 그것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의료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현상, 즉 임상심리확인서가 난민인정의 충분조건은 아니나 필수조건이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프랑스에서 198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즉 파생이 연구를 수행한)까지 강화된 경향을 보이죠. 뒤에서 소개할 틱틴이라는 미국 인류학자도 프랑스에서 관련 주제를 가지고 박사논문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을 의료인도주의라 명명하고 있구요.

### 슬라이드 11

그럼 이와 같은 난민인정의 의료화가 현지 난민지원단체들에게 어떤 문제와 딜레마를 가져왔는가? 이는 다음 글에서 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은 파생이 연구한 네 개의 현지 단체들 중 하나인 프리모레비센터가 발행하는 계간회보 메무아르에 실린 글인데요. 제목은 .....이고 다음 과 같이 이 시스템에 대해 문제 제기 하고 있습니다. ....(읽고) ....

결과적으로 이 체제는 난민신청자와 그들을 돕는 개별 의사와 단체들에게 여러 윤리적이면서 정치적 딜레마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죠.

## 슬라이드 12

이와 같이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에서 등장해온 의료인도주의에 기반한 난민 인정을 파생은 <몸에 쓰인 난민신청자의 진실(그리고 동시에 거짓)을 판별하려는 제도>라고 부르고, 그것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즉, 이와 같은 제도는 제네바협약에서 말하는 망명의 권리, 즉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해의 공포”로 요약될 수 있는 망명인의 권리를 신체의 상흔으로 축소한다. 박해의 공포는 굉장히 광범위한 상태로서 반드시 고문과 신체적 폭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폭력에 대한 공포가 존재하는 경우 망명의 권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지만, 신체적 폭력의 결과물로서 몸에 남은 흔적을 제시하라는 프랑스 제도는 이 공포의 가능성 또는 현실을 신체의 상흔으로 급진적으로 환원한다는 것이죠.

또한, 이 부분은 말키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진단서가 망명신청인의 말을 대체하게 되면서 그들은 전문가에 의해 설명되어야 하는 존재, 즉 스스로의 진실성이 제3자, 보통 전문가적 권위에 의해 보증받아야 하는 존재, 즉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전문가보고서 발급과 망명이 인정된 건수 사이에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제도는 사실상 망명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의심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해 잠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의 통제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된다.

덧붙여서, 여기서 의사란 전문가와 그 지식은 첨예하게 도구화된다. 그들은 치료인으로서 또는 증인으로서 두가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을 매번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 윤리적 딜레마에 부딪히게 된다.

## 슬라이드 13

다음으로 소개할 논의는 미국의 인류학자 틱틴의 순수성의 정치와 희생양담론의 문제에 관한 논의입니다. 들어서면서 틱틴의 논의가 어떻게 앞서 소개한 말키와 파생의 난민정치에 관한 논의들과 연결되는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먼저 보여드릴 것은 몇 년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시리아 출신 세 살짜리 아이 알란 쿠르디의 유명한 사진. 쿠르드족 출신이며 부모와 함께 유럽으로 망명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다 터키해변에서 숨진채 발견된 아이의 모습이죠.

여기서 알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은 무엇을 상징하고 그것은 글로벌 난민담론/체제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틱틴은 먼저 이 사진 한 장이 몇 년 동안 유럽에서 논쟁으로 존재해온 난민사태

에 순수성이란 새 얼굴을 입혔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난민담론이 공포, 혐오, 무관심으로 얼룩졌다면, 순수성의 새얼굴은 이를 즉각 연민이라는 정동으로 바꾸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순수성이 자극하는 연민의 정치 또는 인도주의적 상상력은 종종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곤경 속에서도 **특정 사람들의 특정 곤경만을** 선별하게 하는 경향과 상보적으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쿠르디의 사진이 트럼프의 심금 마져 올리지만 매일 종종 부상당한 몸으로 미국 국경을 넘으려는 멕시코 및 중남미 이주민의 자녀들은 왜 그렇지 못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거죠. 연결된 맥락으로, 인도주의 정치에서 순수성담론은 종종 자격있는(가치있는) 희생자와 그렇지 못한 희생자의 구분을 낳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가능성과 동시에 불가능성을 담보하게 된다.

#### 슬라이드14

그럼, 순수성과 정치의 관계, 또는 구체적으로 인도주의 정치 속에서 순수성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순수성은 정치와 거리가 먼 것, 또는 그것의 부재 혹은 부정을 통해 상상되지만, 한편 오랫동안 정치적으로 배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정치적 삶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인종, 계급, 종교, 정치적 소속과 상관없이 개별인간이 겪는 고통의 해소를 목표로 하는 인도주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반정치성(또는 중립성, 아까 인도주의 역사에서 이야기한)을 추구하며 여기서 순수성은 누가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진짜 피해자인지를 식별하는 데 있어 핵심적 가치가 된다는 것.

#### 슬라이드15

순수성은 보통, 정치, 역사 권력 또는 시공간성을 초월해 존재하는 것, 절대적인 것으로 상상되고 대표적인 예로서 어린이, 동물, 난민(그 중 이른바 진짜 난민으로 파악되는), 또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들 수 있다.

인도주의 활동에서 피해자가 더 순수해보일수록 더 즉각적인 지원이 대상이 되며, 그 결과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은 **순수성과 취약성의 스케일**이다.

동시에 이 스케일 속에서 순수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이들은 즉각적으로 범죄화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 그 예로서 HIV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 순수한 희생양의 전형이라면 그것의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엄마들은 친권박탈 등을 통해 범죄화, 또는 한국에서도 보여지듯이 진짜 난민이 아니면 동시에 불법이주자인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 슬라이드 16

인도주의 활동은 이 순수한 희생자에 대한 연민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연민의 정치**라는 형식을 띠며, 그것의 정치적 효과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틱틴은 볼탄스키라는 프랑스 사회학자의 말을 빌어 연민의 정치의 핵심이 평등이나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대신 두 계급의 사람들을 생산/재생산하는 것에 관여함을 말합니다. 여기서 두 계급의 사람들은 fortunate/unfortunate 그리고 순수성을 추구하는 인도주의 활동은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류의 위계를 나누는데, 이는 운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의 불행과 불운으로부터 구원하는 인도주의 활동/또는 그 활동이 가능한 계급/집단과 그 대상으로서 인도주의 희생자, 피해자라는 이분법과 공명한다는 것.

그리고 바로 이 이분법 또는 위계야말로 오늘날 글로벌 체제를 구성하는 구조적, 상징적, 실제적 불평등의 형식이자 새로운 식민주의적 관계다.

그 속에서 정치적 순수성 또는 반정치성을 추구하는 인도주의 활동은 사실상 그것을 배태하는 글로벌 불평등 자체를 부인할 뿐 아니라 부인을 통해 불평등을 재생산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 슬라이드 17

지금까지 세 논의들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말키**에 따르면 난민지원 국제단체들의 활동, 관련 국제법 및 정책, 지식이라는 삼위, 또 미디어 재현의 상보적 관계를 통해 난민은 스스로를 대변 못하는 탈역사화, 비주체화된 존재로 등장한다.

두 번째, 파생에 의하면, 프랑스의 의료화된 난민인정 절차 속에서 이 분위기가 더 강화될 뿐 아니라 난민의 진실을 몸의 상흔 또는 트라우마로 축소함으로써 난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정당화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틱틴의 논의는 인도주의활동에서 순수성의 추구는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의 이분법을 생산, 재생산하고, 인도주의에서 순수성에의 집착은 근본적으로 인도주의의 반정치적 중립성이란 원칙에서 나오지만 이는 인도주의 활동이 위치한 글로벌 불평등의 구조 자체를 강화하고 재생산한다는 것

## 슬라이드 18

이들의 논의는 서구와 구체적으로 프랑스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여러 상황에서도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논의들은 다음의 구체적 질문들을 직접적으로 제기합니다.



즉, ...

또한, 순수성의 추구는 난민과 인도주의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현재 한국의 여러 이슈들, 즉, 성폭력 피해가해 담론, 동물권 담론, 또는 코로나19상황에서의 의료적 지원과 관련된 여러 담론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가...를 물을 수 있는 것이지요.

### 슬라이드19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이를 넘어서 사고하고 상상하는 것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예를 들어, 말키는 난민지원 담론에서 난민이 탈역사화 비주체화되는 문제는 단순히 개별 지원 대상자에게 마이크를 되돌려 주는 것 이상의 개입을 요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무엇을 구체적으로 의미하는가?

이는 틱틴의 논의에서 더 구체화되는 듯 하는데요.

틱틴은 순수성의 정치가 휘두르는 폭력을 넘어서기 위해 **순수성 없는 세상 또는 현실의 오염됨** 자체를 마주하자고 제안합니다. 순수성을 통해 상상되는 세상은 비현실적일 뿐 만 아니라 폭력과 불평등을 재생산한다는 말인 거죠.

구체적으로 그는 고통에 위계를 설정하는 순수성을 넘어 고통을 재상상하고, 피해자됨에서 순수를 배제하고(즉, 모두가 순수하지 않고서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것), 그럼으로써 **취약성**을 정치적 행위자성의 부재로 상상하는 근대자유주의적, 공리주의적 관념, 사고방식을 넘어서 **정치적 행위와 연대의 본질적 원천 그 자체로서 재상상**하자고(물론 버틀러의 논의를 빌려) 제안합니다. 물론 다양한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이것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는 우리 모두가 고민해봐야 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